



제 8호
2022년 김포종회
www.부안임씨밀직공파.com

扶安林氏金浦宗報



◎ 발행일 : 2023년 3월 10일 ◎ 발행인 : 임종철 010-2327-2974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산재로 42-68

崇祖 改善 和平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새봄을 맞으며 우리 김포종회 종인님들 자신과 그 가정에 건강,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온세계 온나라에 전파되어 3년 동안 모든 활동을 움추리게 해온 코로나는 이제 완전히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종인님들께서 차근차근 총의를 모아주셔서 뜻있는 이런저런 종사를 이루어온 것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실행한 종사로는 우리 김포 종회의 첫 어른이신 부안임씨 11세 휘(諱) 득성(得成) 조고(祖考)님의 제단을 새로이 조성하여 모시게 된 것, 유존각 세일제와 서하공 세일제를 성황리에 모신 것, 추모공원과 납골당 개설편, 사택 수리 개선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는 서하공 세일제에 예년에 비하여 처음으로 헌공다례(獻供茶禮)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종중이 제례를 개선함으로써 송조의 마음을 더욱더 가다듬어 가는 것은 종회가 종인님들의 총의를 모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종회 회장으로서 3년 동안 해온 일들이 많이 미흡했음을 반성하면서, 종인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저의 소견을 종보 인사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낼까요? 왜 제례를 조상님 모시는 경건한 추모의식(追慕儀式)으로 치를까요? 조상님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뜻일까요? 앞으로 잘 되게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祈禱)일까요? 제례날짜를 모임날짜로 삼아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기 위해서일까요? 제물(祭物)로 차린 음식을 가족들, 친척들, 온동네 사람들이 나눠먹기 위해서일까요? 아마도 제례는 이같은 취지가 두루 담겨있는 씨족(氏族)행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제례는 곧 “조상님역사 돌아보기”라고 생각되네요.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란 과거와의 대화”라고 정의하였는데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후세들이 과거 조상님들이 살아오신 가족의 역사, 가문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요약하자면 ‘뿌리 지키기’이겠지요. 그러므로 조상님들의 내력을 좀더 공부하게 되고, 좀더 격조 있게 의례(儀禮)를 갖추게 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외에도 제례가 갖는 의미는 더 다양할 것입니다. 아마도 “제례가 종교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종교가 다양해진 현대에는 가장 큰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부모님 때부터 가족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제례를 종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제사(祭祀)도 예배(禮拜)도 조상님을 추모한다는 점에서는 형식이 다른 것이지 취지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중의 종사(從事)는 제례만은 아니겠지요. 제례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저런 종사가 많고, 이를 통해 종인들이 씨족공동체(氏族共同體)로서 화평(和平)을 이루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엄중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인들이 각각 다른 종교, 다른 신념, 다른 정치이념, 다른 경제사정, 다른 가족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통점은 역시 “조상은 하나!”--“뿌리는 하나”라는 것이겠지요.

저는 종회 회장으로서 종중의 화평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대의(大義)를 지키고 소이(小異)를 인정하되 버리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정신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무(宗務)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종인들끼리 마음을 열고 서로 존중하는 관용(寬容), 나의 언행이 가져올 피해를 수시로 헤아려 겸손한 자세를 갖는 자중(自重), 이런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사결정, 인간관계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의와 원칙, 정관과 규정, 상식을 지켜가는 것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종무 실행에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성씨(姓氏)들의 사례를 떠나서 “우리 부안임씨 김포종회는 사소한 차이를 줄이고 조상모시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회장으로서 종인들께 고마운 마음을 깊이 느끼며, 종인님들의 숭선수범하시는 성의(誠意)와 실천(實踐)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10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회장 林鍾喆

부안임씨 밀직공파 종중 이사회 명단

직책	이름	전화번호
회장	임종철	010-2327-2974
부회장	임종훈	010-3792-2132
부회장	임성희	010-8734-1405
집행위원장	임종광	010-7600-8082
운영위원장	임종상	010-5343-3441
재무위위회 간사	임한기	010-6237-2978
재산위원회 이사	임종찬	010-2877-1782
홍보위원회 간사	임선기	010-2235-0278
제례위원회 간사	임종상	010-5343-3441
이사	임용혁	010-3718-6549
이사	임용복	010-5223-2824
이사	임철규	010-7103-3070
이사	임경기	010-5222-6722
이사	임광기	010-6221-5512
이사	임철기	010-3777-3411

직책	이름	전화번호
이사	임찬기	010-9023-5693
이사	임하기	010-5338-0025
이사	임현기	010-5669-0373
이사	임현기	010-9000-6036
이사	임응기	010-3718-8224
이사	임명환	010-5262-9726
이사	임종수	010-2388-8840
이사	임종찬	010-2877-1782
이사	임도연	010-9553-9369
이사	임동연	010-9835-5400
이사	임성연	010-5244-6723
이사	임승연	010-6365-6554
이사	임정연	010-2391-1394
이사	임철연	010-8596-5812
이사	장영숙	010-4784-4678

직책	이름	전화번호
감사	임종철	010-5340-4954
감사	임병호	010-2739-7750

부안임씨 밀직공파 종중 자문회의

직책	이름	전화번호
명예회장	임종호	010-4734-8002
고문	임종학	010-8387-1477
고문	임병운	010-3044-3463
고문	임종근	010-5328-9205
고문	임종문	010-5389-4848
고문	임종선	010-2287-0945
고문	임문기	010-8549-1773
고문	임충실	010-3396-3394
고문	임병일	010-5470-0163

2022년 종중 업무 및 활동 사항

〈2021년 결산 총회〉

2021년 감사보고, 2021년 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서 확정.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를 종중법인으로 전환 진행. 정관 확정 후 특성조고 제단 개곡리선영 상단에 설치. 서하공 세일제에 헌공다례 실시. 개곡리사택 임대. 개곡리 사무실 신설 및 집기구입. 영농 경영체 등록등을 의결



〈이사회〉

회 특성조고 제단 개곡리선영 상단에 설치.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를 종중법인으로 전환 진행. 정관 확정 유존각 위패 교의설치. 유물진열장 정리. 재산관리 담당이사선임 서하공 세일제에 헌공다례 실시. 추모공원 쉼터(정자 설치) 총회. 자문회의. 이사회 회의비 지급. 명절선물. 신입이사 확정 서하문집을 보완하여 김포종회 발행, 비매품으로 발간. 부안임씨 전서공파 판사공파 고흥 밀직공파 유대강화.



2021년 결산총회 개최 임종철 회장



2021년 감사보고 임병호 감사



2021년 결산총회 진행 임종광 집행위원장



2021년 결산보고 임종상 운영위원장

〈청년회 문수산 등반 후 오찬 회의〉

청년회장에 임종광회장이 이임하고, 임선기회장 취임



〈자문회의〉

회 특성조고 제단 개곡리선영 상단에 설치.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를 종중법인으로 전환 진행. 정관 확정. 개곡리사택 임대. 개곡리 사무실 신설 영농 경영체 등록. 서하공 세일제에 헌공다례 실시. 유존각 위패 교의 설치 등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



〈전국임씨 중앙회 한국임씨부리연구 학술회의 참관〉

전국임씨 중앙회에서 임종철 상임부회장위촉, 임종상 고문위촉



〈부안 연천제 부안향교주관 춘제 참관〉

부안임씨 시조 휘 계미(扶安林氏 始祖 諱 季美) 7세 서하공 휘 춘(7世 西河公 諱 椿) 9세 휘 택(9世 諱 澤) 세분의 위패를 모시고 부안향교 주관으로 춘제를 모십니다. (3월 3째 토요일 오전 11시)



〈사단법인 예명원 김포다도박물관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 참관〉



〈한재당 이목선생 제사 헌공다례 임종상 헌다〉



서하공 세일제

가현산 선영에서 김포밀직공파 주관으로 전서공파(세종, 청주, 증평), 판사공파(부안, 김제), 고흥밀직공파(고흥, 벌교, 낙안), 그리고 김포, 인천, 서울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예명원 김포 다도박물관에서 손민영 이사장님의 10분이 서하공 묘소에서 헌공다례를 올리고 차와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헌공다례 사단법인 예명원 김포 다도박물관 이사장외 임원〉

〈차와 다식 준비〉



〈유존각 세일제〉

김포 개곡리 선영에 새로이 휘 득성 조고님의 제단을 마련한 후, 유존각에 22위 위패를 모시고 조고님들께 세일제를 올렸습니다.



휘 득성조고 제단 봉영 諱 得成祖考 祭壇 封塋

휘 득성조고 비문 (諱 得成 祖考 碑文)

“扶安林氏 11代祖 諱 得成 祖考님!

오랜 歲月(세월) 송구하옵게 墳墓(분묘)를 지키지 못하여, 이제 이곳에 神主(신주)를 모시고 祭壇(제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尊靈(존영)께옵서 이곳에 의지하시어 後孫(후손)들의 精誠을 받아주시옵소서.”

공은 밀직사관 휘 대광조고의 아홉 아들 중 아홉째로 생몰 연대는 알려지지 않으나 중훈대부 사재감정을 역임하셨고, 고려말에 돌아가셔서 개성 주변에 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의 아들은 휘 계정으로 고려 한림학사로 봉직하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 건국하자 불사이군의 충심으로 개경을 떠나 통진에 입향(630년 전)하여 우리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습니다.

공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번창하여 김포 밀직공파로 불리웁고, 형인 일곱째아들 휘 득성조고께서는 서북도 병마절제사로 전남 고흥에 터전을 잡아 후손들이 번창하여 고흥 밀직공파로 불리웁니다.

우리 부안임씨 김포 밀직공파 선조는 7세 서하공 휘 춘 조고의 묘소(870년 전의 실제묘) 부터 10세 휘 대광 조고를 모신 검단 가현산 先塋(선영)에 모시고 있으며 11세 휘 득성 조고 부터 18세 조고까지 김포 월곶면 개곡리의 先塋(선영)에 묘소와 제단을 모시고 후손들이 정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단 가현산 선영의 세일제는 묘소와 제단에서 음력 10월 15일에 묘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곡리 선영의 선조님들은 林氏家廟(임씨가묘)인 唯尊閣(유존각)에 位牌(위패)를 모시고 음력 10월 10일에 歲一祭(세일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휘 득성 조고의 제단이 없었기에 종종에서 뜻을 모아 神主(신주)를 奉安(봉안)하고 祭壇(제단)을 새로이 모시오니 부디 이곳에 의지하시어 후손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위패 신주 (位牌 神主)〉



〈휘 득성 조고 제단 (諱 得成 祖考 祭壇)〉



주요 자산관리 현황



개곡리 선영



개곡리선영



개곡리 선영



유존각 주변 조경



유존각 주변 조경



유존각 주변 조경



개곡리 농지 영농



개곡리 농지 영농



개곡리 사택 뒤 수해복구 공사



개곡리 사택 뒤 수해복구 공사



개곡리 사택 뒤 수해복구 공사



가현산 선영 신도비의 비석군



서하 문학비



서하 문학비



검단 가현산 선영 서하공 묘소



유존각 선영에서 발굴된 유적



추모공원 쉼터



추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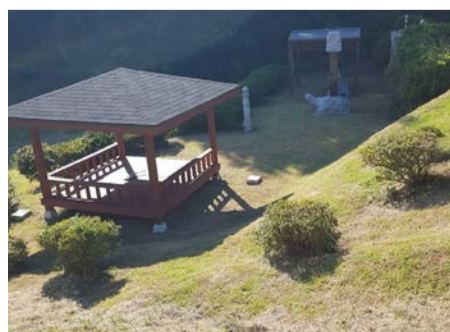
추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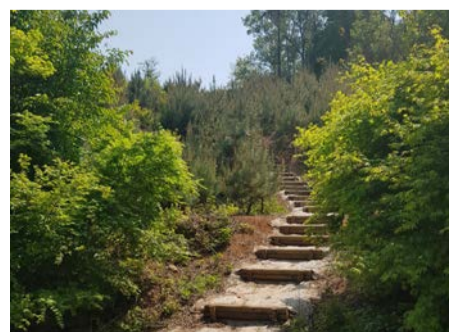
추모공원



추모공원



납골당 제실 및 쉼터



추모공원 산책로



마송 회관건물 관리

<가현 문화재단 고 임성기회장님 유적 탐방>

유심재(留心齋)를 바라본 상념(想念)



김포종중 임종상

지난여름 임종철 회장님과 김포시 통진읍에 소재한 가현 문화재단(고 임성기 회장님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오픈 전으로 마무리가 진행 중이었으나 웅장하면서 담백하고 정교한 품미가 우리나라 한옥 건물 예술의 정수를 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통한옥 명장의 설계와 문화재 복원 전문위원이 도편수를 맡아 건축하였다는 기념관을 지나니 본관 앞은 시원하게 넓은 뜰의 마당으로 여유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뜰 한편에 정자가 있고 그곳에 고 임성기 회장님이 벤치에 앉아계신 좌상(坐像)이 있습니다. 고인의 모습을 뵈 수 있다는 감동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생전에 식사 약속하자는 전달을 받고도 뵈지 못한 몽클한 아쉬움으로 참배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전설이 되셨고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평생 신약개발에 몰두하신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우리 종친과 고향에 유난히 관심과 애정이 많으셨던 회장님의 많은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회장이 앉아계신 정자는 기존의 정자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건축물로 유심재(留心齋)라는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유심재는 옷깃을 여미고 삼가 고인을 회상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자의 지붕은 일반적인 정자의 형태가 아닌 정사각형과 정팔각형 그리고 둥근 원으로 포개진 형태입니다. 수많은 정자를 봐왔으나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고인께서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유훈을 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각형, 팔각형, 원을 소재로 한 유적은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국보 제20호)이 있습니다.

유심재를 다녀온 후 한동안 정자에 대한 의미를 화두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옛날 진시황의 폭정에 반항하여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유계)이 오랜 전쟁을 하였다. 진나라의 멸망 후 항우는 서초패왕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온 전쟁의 신이라 불리었다. 한나라 유방은 지략과 용맹함도 항우와 비교가 안 되는 인물로 항상 패배하고 도망 다녔다. 그러나 유방은 내정을 담당한 승상 소하, 전쟁을 담당한 대장군 한신, 지략과 전술이 뛰어난 군사 장량(장자방)이 있었다. 장량은 항우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면초가의 전술로 항우의 군대를 분란으로 무력화시켜 항우를 붙잡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일등공신인 장량에게 만 호의 봉작과 최고의 벼슬을 하사하였다. 장량은 만류하며 말하기를, "소신이 임금을 도와 군사(참모)가 되어 천하를 통일했고 이제 전쟁이 끝나 고통받는 백성들이 편안해 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고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은 제가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낙향하여 자신을 위한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

고향 집을 지키며 살던 아들과 딸을 건다가 정자를 발견하고 왜 현판이 없느냐 물으니 아들은 판자를 가져와 부친께 마땅한 이름을 써주시라 말했다. 장량은 판자에 "방원각(方圓閣)"이라 써주자 아들이 그 뜻을 여쭙었다.

장량은 "방원(方圓)이란 그저 부드럽고 둥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각형 위에 또 정사각형을 그려 정팔각형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마침내 모 하나 없는 둥근 원이 된다. 옳고 그름을, 나가고 물러섬을, 말하고 침묵함을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계율을 지키듯 언행을 하여 습관이 되면 둥근 원처럼 부드럽고 현명하여 모나지 않게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한나라 승상 소하는 뇌물죄로 좌천되어 구속되었고, 대장군 한신은 항우의 맹장 종리매를 숨겼다는 이유로 역모에 몰려 참수당했으나 장량은 미리 화를 피하고 후세까지 존경받고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

1981년 성철스님은 조계종 종정에 추대받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문을 발표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은 여러 곳에 비유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성철스님의 원문은 "원각(圓覺)이 보조(普照)하니 적멸(寂滅)이 둘이 아니다. 적은 멀이요 멀은 곧 적이니, 시회 대중들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이다.

여기에 원각(圓覺)이 나온다. 원각은 정사각형, 정팔각형....., 모 하나 없는 원을 말한다. 둥근 생각으로 언행하며, 보주는 넓게 두루 비춘다는 뜻으로 계율이 몸에 밴 습관을 말한다. 이러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 둥근 원이 되어 몸에 습관처럼 배이면 오묘한 진리인 고요함과 멸함이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여기 모인 대중은 알겠느냐? 이렇게 수행하면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것도 산처럼, 물처럼 뚜렷이 구분되어 보이는 깨달음의 경지를 뜻한다.

유심재(留心齋) 현판과 건축물을 볼 때 정자의 특이한 기법과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뜻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께 전하고 싶으신, 고인께서 말씀하시는 유훈이 아니겠는가 거듭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셨지만, 종교에 매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원만하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셨을까 유추해보게 됩니다.

맨몸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하시어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를 이룩하신 회장님! 질환의 고통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는 많은 생명을 구하여 인간다운 삶을 찾아줘야겠다는 사명의식으로, 오르지 신약개발의 한길을 살아오신 고 임성기 회장님은 이 시대의 영웅이시고 영원히 존경받을 위인이며 우리 모두의 자랑과 자부심입니다.



김포시 9개 보훈단체 가족 위로잔치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회장 임종철 우리 종인은 10월 18일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김포시 9개 보훈단체 및 가족 400명을 초청해 위로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시의장 국회의원, 해병2사단장등 내빈들이 참석했고 해병대 군악대가 행사반주등 흥을 돋웠다. 국가보훈처 주관하에 시행된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귀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오찬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위로했다. 임종철회장은 "김포시에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의 교류가 부족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단체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종철 보훈단체협의회회장은 월남전 참전용사 김포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다.



獻供茶禮(헌공다례)

撤羹進茶 철갱진다 : 갡(국)을 내리고 차를 올려라
下匙茶器 하시다기 : 수저와 찻잔을 내려라

헌공다례는 笏記에 나와 있는 세일제 제례의 한 순서로
초헌 아헌 종헌이 끝나고 撤羹進茶(철갱진다) 下匙茶器(하시다기) 순서로 이어진다.
철갱진다는 갡(국)을 내리고 차를 올리라는 뜻인데, 언제부터인지 차가 귀해
지고 준비하기가 어려워지자 차를 대신하여 송냉(물)을 올려 밥을 말아 나머지
음식까지 모두 드시라는 뜻으로 대신하여왔다.
그 다음 하시다기는 저분과 찻잔을 내리라는 순서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설명절과 추석에 조상님께 茶禮(차례)를 올릴 때
술이 아닌 차를 올려 제사를 지냈으나, 차의 보급이 여의치 않아 차를 대신하
여 술을 올려 제사를 모시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릴 때 차를 올린 후 예불을 하고 있다.
차와 관련이 있는 종중이나 일부 문중에서도 홀기 내용대로 차를 올리고 있다.
특히 우리 서하공 조고께서는 서하문집에 차에 관한 여러 편의 시와 내용이
있어 지난번 세일제에는 사단법인 예명원 김포 다도박물관 손민영 이사장님 외
10분이 오셔서 헌공다례를 올렸고 앞으로 세일제에는 헌공다례를 하여 우리
문중의 품격있는 제례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헌공다례 차시 낭독(獻供茶禮 茶詩朗讀)

서하 임춘조고의 서하문집은 총 6권에 268편의 고을시와 서간문, 전, 계, 장,
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순전과 공방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 소설로 중 고등학교, 대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차에 관한 시가 6편이 있어 차를 공부하는 차
인들이 차의 고전 문학으로 배우고 연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하 임춘 조고께서는 대대로 고위관료 출신의 선조와 부친 삼형제 분 모두
옥당에 오르시고 백부 휘 민비는 문하시랑 평장사로 세 번의 과거 시험을 주관
하신 명문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하공께서 과거시험 중일 때 정중부의 무신난이 일어나 가족 모두가 몰살
당하고 혼자 탈출하여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천재적 문
학 재능으로 죽림철현을 이끄셨고 후대 국문학계의 큰 지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사단법인 예명원과 김포 다도박물관 이사장이신 손민영 교수님의 일행
으로부터 공의 묘소에서 헌공다례를 받으심을 서하 조고께서 크게 기뻐하시리
라 생각되며, 우리 후손들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헌공다례에 서하공의 차에 관한 詩 몇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점(찻집)에서

쓰러지듯 평상에 누워 문득 몸을 잊었더니
베갯가에 스치는 바람 낮잠 절로 깨어나네.

꿈속에도 이내 몸 머물 데가 없으랴
천지가 모두 쉬어가는 여관이로세.

빈 누에서 잠 깨니 곧 오후 네 시
명한 두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본다.

누가 알까 이 몸의 한가한 멋을
한 자리 봄 잠은 천종과 맞먹네.

점 스님께 차를 보내며

근래에 얻은 몽산의 한 움큼 봄은
희고 붉은빛 아롱져 색과 향이 신선하네.

마음 맑은 노스님 명품을 아시기에
자순보다 더한 진품을 보냅니다.

회서겸상인방장(겸 방장스님과 담소하며)

겸공은 스님 중에도 빼어나
꽃뿔한 풍채 맑고도 고상하네.

석가의 가풍 설두에 전해져
앉은 자리엔 문득 사자후 들리네.

묵묵히 맑은 마음으로 앉아 입 굳게 닫고
다시는 공과 유를 다투지 않네.

방온을 미친 늙은이로 알았다가
종종 참선하러 와서는 머리 숙이네.

서당의 오랜 금주 비웃으며
점다 삼매의 숨씨 자랑했네.

돌술에선 지령이 울음소리 나니
수액 만난 손님 누가 구하랴.

만전으로 산 술만 못하지만
제호보다 맑고 이슬보다 진하니,

물건대 고승은 이것을 마시지 않으려오.

양식을 보내준

요혜 수좌 스님께 감사하며

오늘 아침 문 두드려 주공을 깨우고
수십 말 가득히 쌀을 가져 왔다네.

밥 짓는 아낙을 재촉해 시루의 먼지 씻고
밥솥에 불을 지피자 금방 밥이 익었네.

허리띠 푸고 삼질하듯이 달게 먹고는
일곱 잔의 향기로운 차에 더욱 만족하네.

솔솔 부는 맑은 바람 양 겨드랑이에서 나니
이대로 신선을 뵈고 속세를 하직하리



<독골 유존각 단상>

풍수(風水)와 장릉(章陵)



林 鍾 光
부안임씨 밀직공 30세
부안임씨 김포종회이사

16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전쯤의 일입니다.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와 그의 빈(嬪)사이에서 난 둘째아들인 광해군은 명청(明淸)중립외교에 반발한 서인세력과 영창대군 교살 및 인목왕후 폐비사건으로 인조반정의 빌미가 되어 강화도로 유배 됩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을 등에 업고 보위에 오른 이가 바로 조선16대 인조(仁祖) 임금입니다.

광해군은 제위시절 선조의 다섯째아들인 정원군과 그 아들이 위협 인물로 간주하며 감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정원군의 집터에 왕기가 서렸다는 이유로 그 집을 빼앗아 새로 궁궐(경희궁)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운명은 정원군 편이었습니다. 정원군의 아들(능양군, 인조)이 조선 제16대 임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된 인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주 곡촌리(현재 남양주시 금곡동)에 초라하게 묻혀있던 아버지 무덤을 이장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 아들 인조의 발언에서 엿 볼 수 있습니다

“1619년에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 광해군의 시기와 질투가 날로 극심하였고, 또 다그치고 감시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장지를 정하지 못하여 외가 선산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다. 그러나 그곳은 길가 낮은 곳이고 자리도 변변치 못해 채색이 편치 못함과, 나뭇꾼이며 목동들이 함부로 다니는 것이 걱정이었다. 이장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였으니 과인의 큰 불효다.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나라에서 쓰려고 마련해둔 길가에 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하라.” 그렇게 해서 최고의 길지로 채택한 곳이 ‘김포객사’로 현재의 김포시청 뒷 산 너머에 자리한 현재의 장릉(생부원종과 어머니 인현왕후 具씨의 능)입니다.

지난해, 김포 장릉앞에 신축 중인 고층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장릉은 김포시 풍무동 소재이지만 문제의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는 엄밀히 따지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입니다. 신축을 허가하면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자체가 세계 문화유산 자격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축아파트가 철거 된다면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모르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손실이 너무 크게 사회문제화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김포의 대표 문화유산 장릉을 지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m 이내인 해당 지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과 문화재청 자유 게시판에 “철거하라!” 와 “허가하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유입니다. 게시판 의견 중에 “풍수 같은 미신 때문에 취소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왕릉 같지 않은 왕릉이 무슨 문화재인가?(장릉의 주인공 원종은 추존 왕이다)”같은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풍수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리 모욕을 주는가?

김포 장릉뿐만이 아니라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풍수 경관’이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풍수 경관이 새롭게 인식되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곳에 터를 잡을때 풍수가 터 잡기의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당시 터 잡기는 조선 한문 4대가의 한 사람인 이정구의 책임아래 당대의 최고 지관인 정희주,이갑생이 잡은 자리입니다

남쪽 소래산 지맥이 계양산을 거쳐 북상하다가 한강을 만나 가던 길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계양산을 바라보고 파리를 틀었습니다. 이른바 손자가 할아버지를 어우르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의 길지였습니다. 계양산은 할아버지산(祖山)이면서 동시에 안산이 되기도 합니다. 회룡고조형의 특징입니다. 손자(장릉)는 할아버지(계양산)를 우러러보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어여삐 바라봅니다. 조선 마지막 왕까지 모두 장릉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명당 발복의 근원을 이곳에서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무덤, 집터, 궁궐, 도읍지의 터 잡기, 건축, 조경을 관통한 것이 풍수입니다. 그러므로 풍수는 조선의 역사이자 문화였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에 장소성, 일체성, 조망성, 마루선, 왜소화라는 5대 지표를 참고합니다. 그 가운데 주산, 안산, 청룡, 백호가 별개가 아닌한 몸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체성’입니다. 따라서 안산이자 조산인 계양산이 장릉에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문화재가 작게 보이는 것이 ‘왜소성’규정 위반이라 합니다. 장릉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때 ‘왜소화’는 필연적입니다. 유네스코측이 장릉앞 아파트 신축을 격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아닌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2021년 7월에 세계유산위원회가 해양 경관의 손실을 이유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를 삭제했듯, 경관과 주변 환경이 문화유산에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김포장릉이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장릉의 경관을 해쳐 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기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수는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왔기에 고층 아파트 신축은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된다고 언론에서 회자되는 죽어서 무덤이 된 “죽은자” 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날짜만을 학수고대하는 “오늘날의 산자”와의 한판 대결이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22년 7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보안 1심)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포 장릉 인근은 주거·공업·상업 지역에 해당해 보존 구역의 범위가 200m 이내로 한정되는데 아파트는 애초에 범위 바깥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황당한 재판 결과에 문화와 문화재를 지켜온 많은 사람들을 분노와 실망을 주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 오늘은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는 인위적으로 만들고 억지로 만들려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며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풍수와 장릉을 바라보는 마음 한켠이 쓰립니다. 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사람없듯이 하루아침에 오늘에 이어온게 아닌데 옛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며 시대에 어울리게 실타래를 풀었다면 좋았을 것이고 이러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낭비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흔히들 온고지신(溫故之新)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김포의 유일한 왕릉이 시대변화에 맥을 못추고 건설 시행사에 한판패를 당한 오늘의 역사는 훗날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될 것인지 궁금하며 착잡할 따름입니다.

말없는 장릉산은 오늘도 이 상황을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先祖 歲一祭 案内

- 忠節公 諱 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 文憲公 諱 季美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연천제)
- 西河公 諱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諱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恭惠公 諱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判事公 諱 澤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연천제)
- 密直公 諱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典書公 諱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 學士公 諱 繼禎 (음) 10월 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
- 兵馬節制事 諱 得忠 (음) 10월 13일 전남 고흥군